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3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 108:1-5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48장(새 32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19번(새 35번)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관대 이토록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된 영광을 허락하셨는지요. 오늘도 이 영광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속사함을 강건케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우리 몸을 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한마당교회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오직 사랑만 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마가복음 10:35-45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종의 영광

- 봉 헌(offering) ..... 374장(새 328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504장(새 451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친교 후 소망속 모임이 있습니다.
  - 믿음속장 : 이춘희,
  - 속원 : 기길숙, 김희원/진판자 박준영/윤병옥, 신숙경, 심금자, 이정숙, 이화자, 임숙재, 전영숙, 최은진, 허영희, 홍혜영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9:19-23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철저히 그 사람의 자리에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며 비로소 막혔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 〈말씀묵상〉 마가복음 10:35-45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받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35-40절)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와 으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자이며 그 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41-45절) 나는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만 유지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죄가 들어오도록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지어진 인간관계가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누르고 짓밟아 그 위에 올라 부리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현대사회를 경쟁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며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은 심화 될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시 49:20). 사탄은 인간을 본성대로 사는 동물적 존재로 만들어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존재로 이끌어가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탄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고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